

기독교 평화통일 실천운동 사례연구

- 라이프치히 니콜라이키르헤의 본네베르거(Wonneberger) 목사의 실천을 중심으로 -

1. 서론

본 연구는 지난 제1회 연구주제인 "평화통일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기독교 화해론"에 대한 실천적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거기서 필자는 기독교 화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신학적으로 모색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화해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는 명제 아래 한반도 평화통일을 하나님과 인간세계의 화해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앞서 모색된 평화통일의 신학적 근거는 그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이다. 실제로 그 동안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이론적인 논의들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미비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번 주제가 실천으로 중심으로 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본 연구도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천적인 주제에 충실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통일을 주도해 나간 정신적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키르헤의 목사 본네베르거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니콜라이키르헤의 평화기도회와 평화행진의 중심에는 본네베르거(Wonneberger) 목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독일 통일에 기여한 본네베르거 목사의 기여가 컸다는 이야기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그저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었다. 독일 국가에 세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독일의 역사를 바꾼 목사이요 실천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그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 신학적 신념과 그의 기독교 실천으로서의 평화운동의 기본 방향과 방법들을 사례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화기도회(Friedensgebete),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평화의 10일(Friedensdekate) 운동, 그리고 비폭력평화운동 가능성 모색의 문제 등 그를 통해 기독교와 교회의 평화통일운동의 실천들을 연구해 보는 것은 평화통일 위한 실천적 운동 사례를 모색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실천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확립하게 될 것이며, 둘째, 한국 교회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한국 교회와 사회에 적합한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실천적 기획을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넷째, 향후 기독교 평화통일운동의 후속적인 연구와 기획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과 방법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우선 독일 통일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키르헤의 실천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니콜라이키르헤가 전개하였던 평화기도회와 평화행진이 어떠한 기본정신 하에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실천적인 방법들을 사례중심으로 연

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 실천운동이 어떻게 복음의 기본정신을 헤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또는 국가적 실천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다른 기독교 실천운동과 비교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근래에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크게 알려지기 시작한 본네베르거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간단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 사람의 실천적인 운동이 있기 전에 그 사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생애와 사상이 먼저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런 다음 본네베르거 목사의 기독교 평화통일 실천을 가능하게 한 그의 신학적 근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본네베르거 목사의 실천성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실천을 위하여 때로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천의 뿌리는 성서적 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면밀히 조명해 보고자 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본네베르거 목사가 전개했던 평화운동의 실천적 방향들을 사례별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독일 니콜라이키르헤의 상황과 한국의 평화통일 운동의 상황은 정치, 경제, 문화, 소통, 그리고 교회의 의식구조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양상과 방향 또는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별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니콜라이키르헤의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실천적인 방향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에 적합한 평화통일 실천운동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에 가능하면서도 적합한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 운동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기획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본네베르거 목사의 생애와 사상

2014년 4월 10일자 라이프치히 인터넷 신문은 본네베르거(Christoph Wonneberger, 1944년생) 목사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평화혁명을 이루어 낸 가장 중요한 목사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루터교회의 목사로서 1986년 이후부터 라이프치히(Leipzig) 니콜라이키르헤(Nikolaikirche)의 월요 평화기도회를 공동주관함으로써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주역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본네베르거 목사 개인을 영웅화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는 당시 평화기도회가 실제로 니콜로이키르헤의 봉사자들에 의해 기획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본네베르거 목사의 뜻에도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월요기도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숨은 동역자들과 봉사자들이 협력과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월요기도회는 기도회로만 그치지 않았다. 월요기도회는 평화대행진으로 발전되어 확장되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평화적 데모였다. 이러한 평화기도회로부터 출발하여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는 운동이 결국 1989년 통일이라는 평화혁명을 이루어 내었다.

본네베르거 목사와 니콜라이키르헤가 이루어내었던 혁명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운동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본네베르거 목사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본론적인 내용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독일 작센주의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1965년에 기계조립공으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사실 그는 14세 때 목사가정의 자녀는 상급학교 진학을 제한한다는 통독 공산당의 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거부당하였다. 당시 진학 거부를 알려온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본네베르거 가족의 교육목적이 학교의 교육목적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그는 10학년을 마칠때까지 칼-말스-도시인 쇠나우(Schönau)에서 공업전문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 당시 본

네베르거는 독일 비밀경찰의 스파이 노릇도 거부하고 자유독일청소년연맹(FDJ)의 일원이 되는 것도 거부한다. 학생 때부터 그의 자유정신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매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들의 일원이 되겠느냐?” 그 때마다 그는 ‘아니오(Nein!)’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18세 때 본네베르거는 스스로 골똥히 궁리하기 시작한다. “과연 너의 인생의 길이 이런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다. 기술 그것만으로는 나의 인생이 너무 좁아질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말시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성숙해진 본네베르거는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된다. 당시 본네베르거는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와 그의 저서 “희망의 철학”에 그 무엇보다도 관심이 컸다. 어쨌든 독일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마치지 않고서 직업훈련만 마친 본네베르거가 그 당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라이프치히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 세미나리에 다니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운명의 도시가 될 라이프치히와 처음으로 연을 맺게 된다. 여기서 그는 1965년까지 신학 세미나리에서 배웠고, 한 때 기숙사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신학수업은 전반적으로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신학수업은 그에게 “너무 지나치게 학교식이었고”, 그 학교는 “늦깎이 상급학교 또는 목사를 위한 일종의 직업학교”처럼 다가왔다.

로스톡(Rostock) 신학교와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던 도중에 본네베르거는 독일 비밀경찰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였으나, 곧바로 법정 소송을 통해 서면으로 결별을 선언하였다. 1967년 젊은 치기로 당시 청년단체 선전방송의 안테나를 제거하기도 한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젊은 나이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되며, 독일 비밀경찰의 끄나풀 노릇을 할 것을 종용받게 된다. 학교를 퇴학당하고 일생을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순간 그러한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곧 바로 서면으로 거부의를 표명하게 된다. 1973년 라이프치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77년부터 라이프치히-뮌케른(Leipzig-Möckern)에서, 그리고 타우하(Taucha)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그 후 본네베르거 목사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약 7년간 드레스덴(Dresden)의 와인베르크 교회공동체(Weinbergskirchengemeinde)에서 목회를 하였다. 여기서 그는 무엇보다도 병역의무 기피자들을 위한 자문과 상담활동에 전념하였다. 1980년대 초에 당시 동독 정부가 독일사회를 군사화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¹⁾ 본네베르거 목사는 시민차원의 교회평화운동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평화운동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병역의무에 반대하는 범국가적 운동이었다.²⁾ 작센 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식·비공식적인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적 입장에서 시도한 수많은 감시망들은 본네베르거 목사의 사회정치적인 활동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1981년 동독의 비밀경찰은 본네베르거 목사를 “적대적이며-불온한 인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네베르거 목사에 대하여 “선동가”라는 죄목 하에 형법상의 검열이 시작되었다.

1982년 본네베르거 목사는 구동독의 다양한 교회들에서 정규적인 금요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것은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위한 거점을 발전시키기 위함하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항세력들을 위한 비밀회동장소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그의 제안은 또한 1982년 9월부터 병역의무 반대자들 단체가 라이프치히 니콜라이키르헤에서 평화기도회를 인도하는

1) Einer der wichtigsten Pfarrer der Friedlichen Revolution. in: LeipzigerInternetZeitung, abgerufen am 10. April 2014.

2) Thomas Mayer, Der nicht aufgibt - Christoph Wonneberger, Eine Biographie. in: Schriftenreihe 14 des Sächsischen LStU: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4.

데까지 발전되게 되는데, 후에 본네베르거 목사가 그 일의 공동주관 역할을 맡게 된다. 당시 본네베르거 목사는 1968년 베트남 전쟁의 중압감 아래 쾰른에서 개최되었던 “정치적 저녁기도회”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한 쾰른의 ‘정치적 저녁기도회’가 월요-평화기도회의 모범으로 작용하였다.³⁾

1985년 본네베르거 목사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루카스 개신교회의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된다. 거기서 그가 설립한 반정부적인 “인권운동 단체”로 인하여 본네베르거 목사는 1987년 초부터 국가와 교회의 입장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된다. 국가비밀경찰은 이에 대하여 이미 1985년부터 “선동가”에 관련된 형법적인 검열법에 따라 “해체조치” 작업에 구체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1986년부터 본네베르거 목사는 라이프치히-동부지역의 교구장의 위탁 하에 라이프치히 니콜라이키르헤에서 매주 열리는 평화기도회를 주관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본네베르거 목사는 라이프치히에 반정부적인 단체들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활동 단체들로는 인권운동 단체, 정의 운동 단체, 환경운동 단체, 생명 운동 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 단체가 있었고, 이러한 단체들이 경건회를 번갈아 가면서 주관하였고,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였다. 더 나아가 본네베르거 목사는 당시 반정부적인 가요 창작단체인 ‘라이프치히 리더스체네(Leipziger Liederszene)’가 자신의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활동도 벌이게 된다.

1988년 9월 당시 교구장이었던 프리드리히 마기리우스(Friedrich Magirus)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키르헤의 평화기도회 주관자로서의 본네베르거의 직위를 해제하기에 이른다.⁴⁾ 마기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랑하는 본네베르거 형제 [...] 우리는 다음 몇 주간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평화기도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나로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맡아온 그 업무에서 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⁵⁾

2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반대운동 뒤에야 비로소 본네베르거 목사와 라이프치히 반정부 조직단체들 특히, 인권운동 단체, 정의 운동단체, 생명 선도단체, 환경보호 운동단체, 평화를 위한 여성들 이라 불리는 단체는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타협으로 인하여 이 단체들은 한 목사의 지도와 책임 아래 평화기도회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이 단체들은 본네베르거 목사 외에도 개신교 목사인 클라우스 카덴(Klaus Kaden)과 로프-미하엘 투렉(Rolf-Michael Turek) 그리고 카톨릭 사제 한스-프리드리히 피셔(Hans-Friedrich Fischer)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⁶⁾

3) Thilo Schmidt, Deutsche Rufe: Montagsdemonstration. Deutschlandradio Kultur, Länderreport am 5. September, 2013.

4) Robert-Havemann-Gesellschaft, *Freidliche Revolution 1989/90*. Neues Forum Leipzig: “Zur Geschichte der Friedensgebete”, 25 Jahre Friedensgebete in St. Nikolai 2007; 비교. Rubrik Stasi, “Pfarrer denunzierte Pfarrer” in: *Focus-Magazin*. Nr. 2 vom 9. Januar 1995, S. 13.

5) *Freunde und Feinde. Dokumente zu den Friedensgebete in Leipzig zwischen 1981 und dem 9. Oktober 1989, Leipzig 1994*; Dokument 66. 보라. Peter Wensierski, “Handeln statt Beten”. in: *Der Spiegel*, Nr. 43, vom 19. Oktober 2009, S. 45.

6) Christian Dietrich, *Fallstudie Leipzig 1987-1989. Die politisch-alternativen Gruppen in Leipzig vor der Revolution*. Enquete-Kommission,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in Deutschland*, Band VII/1, 1995 und den Dokumentenband *Freunde und Feinde*, Leipzig 1994.

라이프찌히 교회 지도자들이 라이프치히 ‘개신교 교회의 날’의 공동주관 기관들 명단에서 앞서 말한 반정부 단체들을 제명하자, 1989년 7월 본네베르거 목사는 라이프찌히 반정부단체들과 함께 루카스 교회공동체에서 “대체-교회의 날”을 조직하게 된다.

본네베르거 목사의 지도 아래 인권운동 단체와 정의 운동단체는 1988년부터 루카스 교회의 목사사택에서 모여 반정부 센터를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서독 정부의 지원 아래 그 단체들은 서적들과 복사기들을 비밀리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많은 자미스다트(Samisdat)라고 불리는 유인물들과 전단지들이 작성되고 복사되었다. 그 가운데 저 유명한 전단지 “우리는 한 민족이다”가 있었고, 이 전단지를 통하여 인권운동 단체, 정의 운동단체, 그리고 환경보호 운동단체들이 1989년 10월 9일 동독 정부가 투입한 “병력들”과 라이프찌히 시민들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피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⁷⁾ 전단지는 10월 8일과 9일에 본네베르거 목사, 토마스 루돌프(Thomas Rudolf), 프랑크 리히터(Frank Richter) 그리고 카타린 발터(Katharin Walther)에 의해 한 판에 약 25,000부가 인쇄되어 라이프치히 월요기도회 시작 전에 정오부터 배포되었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키르헤에서 진행된 평화기도회의 정치적 내용을 표준적으로 작성하였다. 1989년 9월과 10월에 걸쳐 본네베르거는 인권운동단체와 정의운동단체와 공동으로 루카스 교회공동체 내에 “데모-전화(Demo-Telefon)”를 운영하여 매주 월요일 월요기도회에 이어 서독의 저널리스트들에게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폭넓은 대중이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포와 구속에 관하여 알게 되며, 시위운동에 이르기까지 대중 집회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리라고 본네베르거는 확신하였다. 바로 이 “데모-전화”를 통하여 10월 9일 이전에 베를린 환경도서관의 지그베르트 쉐프케(Seigbert Schefke)와 아람 라돔스키(Aram Radomski)와의 접촉도 성사되었다. 인권 운동단체와 정의 활동단체가 조심스럽게 구성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혁교회의 탑에 관한 영화촬영이 편성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10월 9일의 데모에 관한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당일 저녁에 본네베르거 목사는 독일 최대의 방송사인 아에르데(ARD) 프로그램인 타게스테멘(Tagesthemen)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약 7만 명이 참가한 라이프치히 평화시위에 관하여 보고할 수 있었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독일통일 준비를 위하여 자신에게 위탁된 사명을 다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통독을 약 1년 앞둔 1989년 10월 30일 심각한 뇌경색을 앓게 되고, 그 때부터 언어능력을 상실하여 일명 “말 없는 목사”가 되었다.⁸⁾ 1991년 본네베르거 목사는 공식적으로 은퇴하게 된다. 그리고 2009년부터 비로소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독일 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친 본네베르거 목사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한국의 평화통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는 2015년 3월 27일에 서울에서 “2015 평화 한국(2015 Peace Korea)”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강사로 나서 주제 강연을 하였다.

3. 본네베르거의 기독교 평화통일 운동의 신학적 근거

헤르만 가이어(Hermann Geyer)는 니콜라이키르헤에서 개최된 매주 월요일 5시 평화기도회에 관

7) *Flugblatt zum 9. Oktober 1989*, “Apell des organisierten Widerstandes zur Gewaltlosigkeit.”

8) Thomas Meyer, *Der nicht aufgibt*. Christoph Wonneberger - eine Biographie.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4.

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부제를 “라이프치히 전환기의 정치적 예배”라는 제목을 부쳤다. 전통적인 한국 장로회 교회에서는 전혀 생소하게 들리는 개념이 바로 “정치적 예배”이다. 과연 정치적 예배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정치적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 예배의 현실적 가능성의 한계는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는가?

칼 바르트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신학적 성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신학적 해결책을 나름대로 그의 논문 “칭의와 정의(Rechtfertigung und Recht)”라는 글에서 제시하고 있다.⁹⁾ 그에 따르면, 루터식의 두 왕국론과 칼뱅식의 그리스도 통치론 안에 여전히 구분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두 영역에 관한 가르침에서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칭의와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화해와 세상의 화해를 모두 나란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비판에 따르면 종교개혁가들이 두 영역을 나란히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영역 사이가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질서의 영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구분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¹⁰⁾

바르트에 따르면 단순히 두 영역을 그렇게 구분하기만 하면, 신학과 교회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험 중 하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첫째, 지나치게 경건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름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현실적인 정의에 대한 인간적인 질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다. 둘째, 완전히 세속화된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칭의와는 더 이상 상관없이 인간의 정의에 대한 물음을 철저히 인간적인 것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정의에 대한 세속적인 교회와 세속적인 복음을 독자적으로 전개하게 될 위험이다.¹¹⁾

과연 이러한 신학적인 딜레마를 본네베르거 목사는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그의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통일운동 전체의 배경으로 삼고 있었던 사상적인 맥락을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네베르거가 독일통일에 기여한 그의 모든 활동들과 그 연계선상에서 뇌경색과 실어증이라는 난관을 극복한 이후 현재까지도 별이고 있는 그의 모든 실천들의 토대를 이루는 몇 가지 사상이 있다.

그 첫째가 바로 그의 진리사상이다. 그의 진리에 대한 탐구와 신념은 그의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상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탐구는 사실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의 평생의 구도의 목표이기도 하였다.

일례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설교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독일로 귀국하게 되어 하지 못했던 그의 설교 본문에서도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저는 항상 알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저는 언제나 진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거짓에 저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계조립을 전공하였

9) K. Barth, Rechtfertigung und Recht - Christengemeinde und Bürgergemeinde - Evangelium und Gesetz, Zürich: TVZ, 1998.

10) 위의 책. 7.

11) 위의 책. 8.

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공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실천신학을 전공하였고 동시에 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리추구의 흔적은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거기 있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는데, 그는 그 사건을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Havel)¹²⁾.

그의 진리에 대한 탐구정신과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계속 공부하여 간디와 그의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그에게 “사티아그라하” 운동은 “진리와 사랑으로 태어난 힘” 즉, 비폭력 저항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진리사상은 곧 자연스럽게 자유사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그의 활동 전체를 뒷받침 하는 두 번째 사상이다. 평생에 걸쳐 그가 추구했던 것이 진리였다면, 그 진리에 근거하여 실천적으로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자유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사상은 그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싶었던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그가 16세 되던 해 그는 목사였던 아버지와 교회의 일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교회는 그에게 너무 경건하게 느껴졌고, 경건주의적인 분위기를 그에게 아무런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으로부터 한 가지는 가지고 싶었다고 술회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유’였다. 물론 머리와 사고에 있어서 자유를 의미하였다.¹³⁾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철학”이었다.¹⁴⁾ 사실 처음에는 폴란드, 체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맑스주의자들과 독일의 신학자들 사이에 대화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 그는 독일의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써서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던 에른스트 블로흐와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맑스주의와 기독교 신학 사이에 영적인 친척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의 사상의 근거에는 맑스주의적인 실천정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제로 신학적인 내용들이 실천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상적인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네베르거의 모든 실천의 근거를 이루는 사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그의 “평화사상”이다. 본네베르거는 이 평화사상을 접했을 때부터 일찍이 체득해 나간다. 그의 평화사상은 특히 체코에서 ‘프라하의 봄’을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체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코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국민운동이었고, 그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현

12) Václav Havel [vãtʃslaf 'havel] (* 5. Oktober 1936 in Prag; † 18. Dezember 2011 in Vltice-Hrádeček, Okres Trutnov, Královéhradecký kraj). 그는 체코의 드라마작가, 에세이 작가, 인권운동가, 정치가였다. 그는 공산당 정권 하에서 체코의 주도적인 정부비판가 중의 한 사람이었고, 77 헌장문의 주관자이기도 하다. 독일과 체코 사이의 화해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직접 참여하였던 총체적 혁명 이후에 그는 1989-1992년 사이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하였고, 1993-2003년 사이에 체코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다. 그 외에도 그는 작가협회 Obec spisovatelů 의 회원이기도 하며, 로마 클럽(Club of Rome)의 명예회원이기도 하다.

13) Thomas Meyer, Der nicht aufgibt. Christoph Wonneberger, 16.

14) 참고. Ernst Bloch, *Das Prinzip der Hoffnung*.

장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는 1968년의 봄을 그리고 그 여름을 함께 경험하고자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8월 21일까지다. 그런데 갑자기 밤사이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르샤바 조약의 동맹군이 체코를 침략해 들어왔던 것이다. 프라하에도 침략해 들어왔다. 본네베르거는 그 현장에 있었고, 사진도 직접 찍었다고 한다.

그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직접 경험하였고, 분노와 저항, 그리고 절망 그런 다음 슬픔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실제로 본네베르거 목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그 때 하나의 위대한 삶의 주제가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폭력”의 문제였다. 폭력은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동시에 날뛰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현실을 직접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본회퍼를 공부하고 마지막 시험과목으로 본회퍼를 택하게 되며, 간디와 그의 “사티아그라하”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배웠으며, 미국의 마틴 루터 킹과 그의 창조적 저항으로부터 시민운동을 배우게 된다. 바로 이러한 비폭력 평화사상이 그가 처음으로 부임하게 된 라이프치히 목회지에서부터 출발하여 드레스덴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실천운동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나는 간디로부터 비폭력 운동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배웠다. 그 당시 인도에서. 그리고 나는 마틴 루터 킹으로부터 시민권 운동을 위하여 십계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배웠다. 그 당시 미국에서.”¹⁵⁾

그 당시 본네베르거 목사의 주된 관심사는 열린 청년 목회였다. 그의 심장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뛰고 있었다. 사회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뛰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당시 독재정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게 된다. 그 사이 자주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때 그는 새로운 학생운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 후에 독립적인 노조인 “Solidarnoc”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폴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 당시 동독에서는 학교에 “군사교육” 과목이 도입되는데, 개신교회는 그것에 반대하여 저항하였고, 그러한 저항운동에 그는 다방면으로 참여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군비확장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중앙유럽에도 위협감이 밀려오던 때였다. 그 때 본네베르거는 무장과 비무장, 군비확장과 군비축소 문제를 깊이 연구하게 된다. 그의 안에 좋은 생각이 자라나게 된다. 교회도 기동성을 얻게 된다. “평화 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활동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980년부터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 10일” 운동이 해마다 10일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네베르거의 생각도 점점 더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가리켜 총체적으로 “사회적 평화봉사”(SoFd)라고 불렀다. 그것은 곧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동독에 군복무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 봉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활동을 위하여 먼저 주도적 단체가 드레스덴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된다. 개신교 노회들도 이 일에 동참하는데, 처음에 그러한 확산은 연서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런 다음에는 메일로도 이루어졌다. 전 국민적인 관심은 너무도지만, 국가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비밀경찰(Stasi)의 감시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바로 이 난관에 직면하여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평화기도모임”이었다.

15) Christoph Wonneberger, 2012 in Leipzig in einer Debatte mit Jugendlichen im Zeitgeschichtlichen Forum.



Aufkleber für die «Initiative Sozialer Friedensdienst» (SoFd).



Alternative Postkartenkunst: Wonneberger bietet Dresdner Mailart-Künstlern in der Weinbergkirche eine Ausstellungsmöglichkeit.

4. 본네베르거(Wonneberger) 목사의 평화운동의 실천적 방향들

1) 평화기도회(Friedensgebet)

독일은 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나뉘어진 이후 40년 간 분단 상태였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소련은 ‘낡은’ 사회주의 국가의 단면을 드러냈다. 무능과 부패, 자본주의적 병리 현상이 혼합돼 있었다. 고르바초프는 위로부터의 혁명을 내걸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경제개방을 추진했고 이 여파로 동·서간 긴장이 완화됐다. 동유럽에서는 사회주의 동맹이 무너지며 대규모 시위와 저항, 자유선거와 연립 정부 수립의 단계를 거치는 등 대변혁을 경험했다. 대규모 시위는 동독에도 나타났다. 82년 가을 라이프치히 광장에서는 50여명의 청년들이 동서독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교회당으로 피신했다. 성니콜라이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열렸던 ‘평화기도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1989년 가을 평화혁명을 이끌어 낸 핵심인물인 본네베르거의 애칭은 아주 귀엽게도 본니(Wonni)였다. 본네베르거 같은 인물들은 언제나 한 편의 역사를 쓰게 된다. 1989년 시작된

혁명의 가을 월요일은 역사적으로 결정된 날이었다. 9월 25일 라이프치히 중심부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 월요 평화기도회 시간이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 날인 월요일 기도회의 날로 정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 때 기도회는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인권운동단체와 본네베르거, 그리고 루카스 교회의 목사가 주관하였다. 너무도 분명한 어조로 본네베르거와 그의 동료들은 동독의 사태에 관하여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구동독의 사태는 내적, 외적인 동요가 가중되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니콜라이 교회에서 진행된 월요기도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 니콜라이 교회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서 평화기도회 참석자들을 향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고서 교회가 참여자로 넘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과 교회 밖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음을 알렸다. 잠시 후 본네베르거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폭력으로는 ...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목에 면도칼을 대고 있던 이발사 조수가 한 말입니다.” 본네베르거는 계속 이어 말하기를, “폭력으로 사람이 철저히 바뀔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망가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설교에 사람들은 박수로 환호하였다고 한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지난 몇 주간에 체포된 친구들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본네베르거는 계속 이어 말하기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폭력으로 위협하는 사람 그리고 폭력을 적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폭력의 희생자이다. 검을 잡는 자는 검으로 죽을 것이다. 자동소총을 손에 쥐는 자는 그 총으로 자기 머리를 겨누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 그냥 그렇다. 슈류탄을 던지는 사람은 곧 손목이 절단될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폭격기를 타고 비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조준경의 타겟이 될 것이다. 곤봉을 휘두르는 사람은 스스로 보호 헬멧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눈멀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임의대로 빼앗는 사람은 곧 스스로 그 어떤 도주로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긴 박수가 이어졌다.

기도회는 예배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교환됐고 성명서가 발표됐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86년부터 성니콜라이교회의 평화기도회 주관 목사로 위임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당시 동독 정부는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계속 교회로 모이자 탄압을 시작했다. 인권·노동단체의 출입을 통제했고 비밀경찰이 교회 안에 상주하면서 기도회를 감시했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협박까지 받으며 88년 평화기도회 주관 목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신이 시무하던 루카스교회 목사관 안에서 인권단체의 권익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동독 정부는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 기도회와 자유·통일을 향한 물결을 막지 못했다. 89년 9월 25일, 본네베르거 목사는 성니콜라이교회에서 라이프치히 평화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비폭력’을 주제로 설교했다. 산상수훈(마 5~7)의 팔복은 성경 본문이었다. 이 메시지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했고 이후 10월 9일 평화기도회에 8000명이 참가하며 촛불을 들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설교, 기도 그리고 축복. 한 시간 후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손에 손을 마주잡고 피트 시거(Pete Seeger)의 저항가 “우리는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을 함께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행진에 합류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함께 했다. 약 4천명이 넘는 시위자들의 행렬이 중앙역 방향을 향해 전진하였다. “새로운 공개토론을 허락하라!”라는 구호가 들려왔다. 구동독의 독일통일사회당(SED) 라이프치히 지역구 문서에는 후에 “교통방해” 죄를 묻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운동은 오직 경찰 병력의 투입을 통해서만 멈춰질 수 있었을 것이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가 공권력은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당황하였다. 라이프치히의 독일통일사회당 시지도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

1 당서기 요아힘 프라흐(Joachim Prag)는 지난 월요일 평화기도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된다. “본네베르거 목사는 소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즉, 몽둥이를 드는 사람은 스스로 안전모를 써야 한다. ... 사람들은 무서우리만치 선동을 당하고 있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에 관한 행동규범을 교회 안에서 받고 있다.”

비록 독일통일사회당의 권력자들이 아직 허락할 의지가 없었지만 평화 혁명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자신의 인간적인 차원을 내어 놓았던 용감한 사람들에 관하여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에 관해서만 최종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보니”에 관하여,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에 관하여. 그는 기억될 준비가 되어 있다. 친구들과 함께 싸운 동료들은 오늘날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시대전환 즉, 무엇보다도 작센주로부터 그리고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플라우엔과 같은 도시들에서 시작되었던 그 시대전환이 일어난 약 25년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보니는 우리에게 어둠이 가장 깊었던 시대에 민주적인 태도를 가르쳐주었고, 우리에게 자유정신을 심어주었으며 일반적인 비밀경찰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다.”



Das Plakat für das erste Friedensgebet in der Dresdner Dreikönigskirche, April 1982.

2) 평화10일금식운동(Friedensdekade)

1980년대 초 본네베르거의 (정신적) 아들은 사회적 평화운동(SoFd)이었다. 이러한 평화운동이 국가와 교회를 어느 정도 불안에 빠뜨리게 되었을 때, 새로운 주도권을 쥐고 이러한 불안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을 인권-목사인 본네베르거는 이루어내었다. 1983년에도 개신교 교회에 평화10일금식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만일 이 11월에 있었던 이 10일 동안 본네베르거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는 본네베르거가 아니었을 것이다. 바인베르그 교회공동체는 “생명을 위한 금식”이라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부한 “왜? -설명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서적인 전통에 따르면 금식은 한 인간의 깊은 내적인 충격과 동요의 표현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전적인 집중의 외적 표시이다. ... 그리고 당면한 중요한 결정들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이다...”

금식에 대한 이러한 답변에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동기를 본네베르거는 의식적으로 훨씬 넘어서고자 한다. 본네베르거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그는 평화문제에 깊은 인상을 받고서 금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즉, “금식은 무장해제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나는 나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방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으로나 또는 전적으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상호 적대적인 군사소집과 상호적대적인 극도의 요구는 집단적인 자살이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본네베르거가 작성한 그 글의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금식경험의 한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머리로 뿐만 아니라 전적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

10일에 걸쳐 이 운동은 진행된다. 매일 밤 공개적인 행사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음악가들의 연주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의 마지막 날에는 바인베르그 교회 공동체가 동동의 인민의회와 독일 국회에 보내는 편지가 작성되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한 금식 릴레이’를 위하여 드레스덴의 바인베르그 교회공동체에 모였다. 우리들 중 각자 모두는 지난 10일 동안 매일 24시간에 걸쳐 깨어 있으며, 기도와 금식함으로써 함께 하였다. 개인으로서 책임적으로 살 준비를 철저히 점검하며 갖추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경험들은 우리를 인민들의 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다. 무엇보다도 제3세계에서 인민들은 매일 같이 ‘동쪽’과 ‘서쪽’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보호, 우리의 ‘안전’은 이제 우리에게 자매요 형제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모든 것이 함께 우리의 멸절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며, 정치적인 적을 공동의 안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위협의 정신이 지배하지 않을 것과, 위협의 논리에 더 이상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을 것, 그리고 위협의 실천에 더 이상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위한 방향으로 일방적인 결의를 내리는 바이다.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결의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발걸음이며, 생명을 위한 우리의 회개의 표시이다.”¹⁶⁾

이 편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본네베르거는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그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즉, “그러한 일들은 매우 중요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일은 당면하고 있는 사태들을 가라 앉혔다.”¹⁷⁾

16) Thomas Mayer, Der nicht aufgibt - Christoph Wonneberger, Eine Biographie. in: Schriftenreihe 14 des Sächsischen LStU: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2014. 63.

십일-금식운동에 관하여 현재 접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그 당시 금식 참여자들이 생명을 위한 금식을 생명나무로 함께 작업하여 만들었던 카펫이 남아 있다. 이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서 당시 생명과 평화운동을 증거해 주고 있다.

십일-금식운동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금식기도회가 단순한 기도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십일-금식기도운동은 본네베르거 목사가 직접 밝힌 바대로 하나의 '사회적 평화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회는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생명운동'이었다. 금식기도회가 단순한 종교적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적이며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와 생명운동으로서의 십일-금식기도는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 평화통일을 위한 금식기도회가 얼마나 큰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금식-기도회는 생명과 평화를 위하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자신에게 습관처럼 익숙한 것들을 과감히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적 결단으로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신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문화행사

본네베르거 목사가 평화통일 운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진행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평화문화행사였다. 그는 언제나 다양한 문화 행사들과 함께하는 평화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평화 운동이 자칫 투쟁과 대립, 반목과 증오로만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아이디어였다. 그는 자신의 실천 운동에 음악, 미술, 놀이 등 다방면에 걸쳐 문화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곤 하였다. 실제로 그는 두 번에 걸쳐 수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대규모의 금식 릴레이를 조직하였는데, 한 번은 83년 드레스덴에서 했고, 그 다음은 85년 라이프치히에서였다. 아무튼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들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문화행사에서 본네베르거 자신도 얼굴에 색칠을 하며 참여자들과 함께 놀았다고 한다.



Konzert mit Barbara Thalheim in der Weinbergskirche, Anfang der 1980er Jahre.

17) 위의 책. 64.



Heute im Zeitgeschichtlichen Forum: Fastentepich, der als Applikation zusammengesetzt wurde.

6. 한국 교회와 사회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평화통일실천운동 기획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서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뷰에서 본네베르거 목사 자신이 직접 밝힌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그는 우선 한국의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 언급한다. 첫째, 분단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등 주변국과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긴장은 동북아시아에도 평화가 아닌 긴장을 계속 조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가 지적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대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한 한 가지 사실은 통일을 준비하면 기도하는 한국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즉, 당시 구동독의 기도운동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유럽의 질서가 평화로 확립되기를 기원했다. 무엇보다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랐다. 통일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 교류하면서 물꼬를 텃다. 이후 양국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교회의 기도는 통일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의 인권이 증진되도록,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통일이라는 당장의 눈앞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많은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신앙과 복음이 현실적인 능력과 실재를 확보해야 하는 당연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만을 바라보면 오히려 이념논쟁이나 힘의 논리에 빠져드는 모순을 면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진리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이는 소위 말하는 메타크리틱(Metakritik)의 방법론이기도 하

다.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눈앞의 현실적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목표를 목표 그 자체로 삼을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통일의 실천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이념대립의 극복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본질 즉, 인권과 인간의 자유, 평화, 진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관점에서 조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전 발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밝힌 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남북의 화해는 하나님이 이 세계와 화해하신 그 사건 위해서 해석하고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수많은 현실주의자들이 간과하려고 하지만, 간과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통독 과정을 구소련으로부터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와 경제개방 등으로 인한 동·서간 긴장이 완화와 대규모 시위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이 성 니콜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기도회를 간과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를 단순히 종교적인 기도회로만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 기도회 없는 단순한 현실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본네베르거 목사가 진행했던 평화 실천 운동은 한국의 평화통일 기도회와 실천을 위한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되겠다.

첫째, 본네베르거 목사의 기도회 운동은 범시민적인 연합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기도회의 주관권을 교회라는 경계를 넘어서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평화기도회의 주관권을 각종 시민 인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이 특이하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평화기도회는 주로 교회의 목회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차별을 이룬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인 힘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둘째,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는 단순한 기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화, 사회, 정치 등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기도회였다. 기도회에서 기도된 내용들이 선언문으로 작성되기도 하고, 나아가 연서들을 통해 배부되기도 하며, 스티커를 제작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회 마다 작성되어 선포되는 평화기도문은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분단 70주년을 맞아 진행된 군사분계선(DMZ) 자전거 횡단 행사도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 행사에 본네베르거 목사도 직접 초대되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정말 잘한 일이라 여겨진다.

셋째,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회는 이미 말했듯이 당장의 눈앞의 목표보다는 훨씬 더 큰 평화, 진리, 자유, 인권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반드시 확보해야 될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한국교회는 이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진행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그리고 그 모든 실천의 궁극적인 뒷받침이 되는 진리와 자유 그리고 정의라는 본질적인 주제들을 바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분단 현실의 시대는 통독의 시대와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대 자체의 변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질서가 변하였고, 세계의 정치역학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세계인의 평화와 자유에 대한 관점

도 사뭇 달라졌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평화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발제를 마친다.